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제도정착을 위한 해외 사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명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고용상 남녀차별 개선을 통해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비록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만, 그동안의 부분적 성과와 평가에 기반하여 향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월 23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초점은 이미 적극적 조치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 호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아졌다. 특히 토론회 발표문 중 다음 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중요한 정책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사례에 따르면 미국의 전 노동인구 중 28~40%가 법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시행된 적극적 조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적극적 조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절하게 '채찍'과 '유인' 전략을 구사하였다. 적극적 조치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 계약

의 취소, 일정 기간 체결금지, 벌금, 피해 보상 등 여러 수준에서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유인' 전략도 사용되는데 금전적 보상보다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여성 고용현황에서 미달로 지적된 기업이 이행실적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일 경우 격려 차원에서 주는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회 확대에 양적·질적으로 기여한 기업에 대해 다양한 수준에서의 상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줌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한편 호주의 사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공적인 정착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할 만한 몇 가지 제언을 담고 있다. 발표문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정책을 위해서는 측정지표의 관리, 여성 이슈와 논의에 남성 참여의 확대, 비즈니스 니즈와의 접맥, 긍정적인 언론보도 등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호주에서는 적용대상 기업 대부분이 적극적 조치에 대해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기업의 50% 이상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에서 미달 기업으로 선정되는 우리나라에서 호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상 두 나라와는 달리 오스트리아 사례는 유럽의 경우 개별 국가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해 초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유럽 국가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성주류화정책이 개별 국가의 여성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발표문에 따르면 비록 실행방식은 크게 북부, 남부 유럽, 앵글로색슨 지역, 대륙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성주류화에 기반한 공개적인 정책 조정을 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여성고용정책은 주로 국내 관행에 의해 많이 좌우되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점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사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질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초국가 차원도 포함되리라 본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표준화시킨 ISO 26000 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기업의 고용평등정책과 관련이 있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도 ISO 26000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쯤 최종 지침서가 공개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결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전향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KLI**